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4> 백만송이 꽃

을 여름 바이칼호를 찾았을 때, '정말 바이칼을 사랑하는 표정'을 가진 그는 여행업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선비풍에 가까웠다. 버스 안에서 그는 러시아 여가수인 알라 푸가초바가 부른 '백만송이 꽃'이라는 노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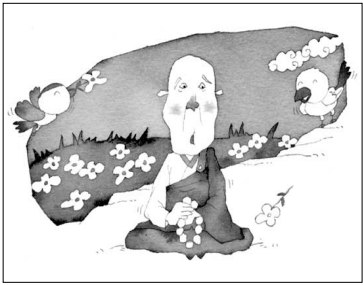
미모의 유명한 여배우를 짝사랑하던 어떤 가난한 무명화가가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백만송이 장미를 사서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 광장에 뿌려 사랑을 고백했으나 결국 그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말았다는 사연이 요지라고 했다.

꽃은 여러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가난한 그 화가에게 꽃은 간절한 사랑고백을 위한 매개체였다. 부처님께서 대중 앞에 들어보였던 그 연꽃은 진리의 상징언어였다. 진리와 욕망이라는 상반된 메시지의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꽃이 가지는 의

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말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이것이 참으로 반야를 잘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안목이라면 꽃을 올림반만 자격이 있고, 또 밤을 자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럴 경우 꽃도 사실 꽃이 아니요, 받아도 받은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꽃이 가지는 모든 의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은 우두법음(594-657)선사일 것이다. 그가 우두산 유서사 북쪽 바위굴에 앉아 정진할 때다. 새들이 선사에게 온갖 꽃을 물려다주는 상서로운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는 이 일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사조 도신(580-651)선사가 이 광경을 보고는 '꽃마저도 필요없는 경지'를 할 수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 찾아갔다. 우두선사는 공부하는 체 하며 팝잡고 앉아있자 도신 스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있다



꽃치장 금지한 계율에 집착한 성문승들 선녀가 뿌린 꽃 몸에 들어붙자 아연실색

미는 모두에게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수행자는 꽃으로 자신을 꾸며서는 안된다. 서릿발같은 계율은 역으로 또다른 집착을 만들었다. 그래서 문수의 법문에 감동한 선녀가 꽃을 뿌리니 그 계율에 집착하는 성문승들에게 역으로 꽃들이 몸에 그대로 붙어버렸다. 이 의도하지 않는 '파계'에 아연실색한 율법주의자들은 온갖 신통력을 동원해 떼어내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러나 그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대승보살들의 몸에 내린 꽃들은 아이러니하게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작 꽃은 아무 생각도 분별도 없는데 오히려 당사자들의 오버하는 분별의식을 질타하고 있다. 그야말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런 마음을 비운 경지는 공현을 가장 잘 아는 수보리 존자가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날 존자께서 바위굴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제석천이 나타나 반야를 잘 말씀한다고 찬탄하면서 꽃을 뿌렸다. 이에 존자는 반야를 설한 적이 없다고 반문하니 도리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다.

"존자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도 또

는 뜻이 물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마음을 관(觀)합니다."

"관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또 어떤 물건인가?"

이 한 마디에 그 때까지 꽃놀이패를 즐기던 그 마음도 완전히 없어졌다. 물론 이후에는 더 이상 새가 꽃을 물려다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는 뒷날 많은 남자들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화두가 되었다.

"우두법음스님이 사조도신선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찌서 온갖 새가 꽃을 물려다가 바쳤습니까? 또 만난 뒤에는 왜 더 이상 꽃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백만송이 장미"라는 그 노래의 후렴도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근사치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없이 /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지만 할 때 /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이 되고 / 그리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지속과 반복'으로 '나' 바꾸라

생활 속 수행, 지도자들에게 묻다 (上)



수행에 있어서 지도자의 점검은 필수다.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진척시킬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러 개의 그릇이 있지만 우리는 늘 쓰는 그릇을 쓴다. 귀가 떨어져 나간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게 익숙하고 편하다. 마음그릇도 그렇다. 새 그릇을 꺼내 쓰기보다는 늘 쓰던 그대로를 고집한다. 질이나 수련회에서는 잘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잘못된 수행태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수행은 '나'를 바꾸는 훈련이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참선·염불·절·위빠사나 등 각 분야별 수행 지도자들에게 물어 그 내용을 2회에 걸쳐 정리한다.

▶자기 수행에 확신을 갖자
재가불자의 생활 수행에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항목으로 모든 수행 지도자들은 '믿음'을 꼽았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부처님 진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수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수행에 대한 확신이며, 이것이 바로 신심이다. 신심은 자기 마음을 믿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생긴다. 자기 마음을 믿기 위해서는 정견을 확립해야 한다.

정견 확립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확실히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행과 이론을 겸비한 스님이나 재가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정목 스님(정도원 원장)은 "믿음이 성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 큰 차이를 보인다"며 "믿음 없는 수행은 껍데기만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지도자 점검을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신어야 한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수행도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점검은 필수적이다.

대호 스님(제주 원명선원장)은 "참선을 하면서 스스로 화두를 만드는 불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환자가 스스로 처방을 하는 것과 다르다"며 "화두는 반드시

사성제 등 교리 이해는 필수 기반 자세와 호흡법 등 기초 탄탄히 쌓자 시작과 끝은 좌선으로 마무리 하길

지도자에게 받아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체험도 수시로 점검을 받는 것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조언했다.

특히 수행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혼자서 판단하거나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선(禪)을 이해한다
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수행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다. 어떤 수행이든 그 방식은 달라도 목적인 한 길이다. 바로 부처님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상공수 불자들은 그저 막연히 수행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불자들이 많다.

불교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의 종교다.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다.

참선수행을 하지 않는 불자라고 하더라도 틈틈이 참선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덕산 스님(해은사 주지)은 "참선수행이 아닌 다른 수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틈틈이 참선을 하면서 교리적으로도 참선에 대해 공부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초를 다지자
정경 스님(법왕정사 주지)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불자들의 경우 수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며 "지도자에게 배운 자세와 호흡법 등 기본자세를 생활하면서 자주 반복해 몸에 익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지속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무엇이든 몸에 익어야 제대로 할 수 있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은 정신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수행기법을 터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세가 불안정하다거나 호흡이 좋지 않으면 어떤 수행이든 오래 할 수 없다. 즉, 기본적인 자세와 기초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은 습관이다.

수행은 꾸준한 반복이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하면 하루 20-30분을 하더라도 집중이 잘되고 진척이 빠르다.

▶생활습관 잘 절제해야 효과
항상 정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수시로 좌선을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수행을 하든 마찬가지다. 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사경수행을 한다고 해서 좌선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수시로 좌선을 하라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수행을 하든 좌선으로 시작을 하거나 끝을 맺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은 수행할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을 배불리 먹거나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거나 하는 등의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수행이 쉽지 않다.

좌선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제어하는데 훌륭한 방편이다.

대호 스님은 "일상에서의 수행은 생활습관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은 "수행의 마음집중이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수행을 하든 좌선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도움말씀 주신 분들

대호 스님(제주 원명선원장) 법현 스님(원정선원장) 해거 스님(금강선원장) 호란 스님(오봉사 주지) 정목 스님(정도원장) 청견 스님(법왕정사 주지) 덕산 스님(해은사 주지) 법인 스님(공덕사 주지) 김법원(위빠사나 지도법사) 김경호(전통사경연구회장)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화권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나 말로 당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형편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아젠 제대로 알아!”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교리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법문
- 반야심경
- 임경
- 정법가
- 법문
- 사회가
- 기도찬불가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성법
17. 삼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행삼매론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저크지
· 구성: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 8220
국내-해외몰그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